

백신에 대한 태도: 당파성과 과학의 역할*

곽동진**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정치화되었을 때 백신에 대한 태도는 당파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과학에 대한 태도 또는 과학적 지식이 이러한 당파적인 차이를 완화하는가? 본 연구는 한국 거버넌스 바로미터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심화되었던 백신 이슈의 정치화 현상이 팬데믹 이후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화 현상의 파급효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자일수록 민주당 지지자보다 백신 일반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지식수준이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에 대한 태도가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완화하는 효과는 없었다. 반면 과학적 지식은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는 코로나19 백신 이슈가 정치화된 이후 개인의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과학의 역할도 이를 완화하는 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백신수용성, 당파성, 정치화, 과학 지식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3091302). 발전적인 심사평을 주신 익명의 세 분의 심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E-mail: djkwak@korea.ac.kr)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12월 출현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4년 5월까지 약 710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¹⁾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백신은 전례가 없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팬데믹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인 2020년 말에 되어서야 개발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바이러스만큼이나 빠르게 확산된 백신 관련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고 백신 접종 거부를 부추겼다(Sallam et al., 2021; Saied et al., 2021; 김한나 외, 2021).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비롯하여, 백신 수급 문제, 다양한 변이의 출현, 백신거부 등의 이슈를 따라 WHO가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는 2023년 5월까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의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 증가와 백신의 정치화 현상이었다. 우선 전례가 없는 바이러스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에 개발된 백신에 대해 효과성과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증가하여 백신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났다.

한편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슈의 정치화(politicization)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미국 등에서 백신 개발이 가시화된 2020년 말부터 문재인 정부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²⁾ 사이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며 백신에 대한 이슈가 과학적 판단 대상에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불신과 정치화 현상은 백신 일반에 대한 신뢰도와 백신 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한국 사회의 백신에 대한 수용도 및 신뢰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Vaccine

1) 세계보건기구(WHO). "WHO COVID-19 Dashboard." <https://data.who.int/dashboards/covid19/deaths> (최종확인: 2024.06.10.)

2) 2020년 2월 보수정당들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을 창당하였으나 2020년 9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이라 지칭하였다.

Confidence Project의 Vaccine Confidence Index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과 2022년 사이에 한국인의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34.9%p 감소하였다 (Wiegand et al.,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가 90% 내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2022년 55개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하락 비율을 보이며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백신수용성이 높은 국가에 속했던 한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백신 전반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난 백신에 대한 불신과 정치화 현상이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정치화되었을 때 이후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가 당파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과학에 대한 태도 또는 과학적 지식이 이러한 백신에 대한 당파적인 차이를 완화하는가? 약 2년 반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논쟁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슈가 격렬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경우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도 당파적 배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지식수준이 이러한 당파적 배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다.

이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나타난 백신 이슈의 정치화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정치화될 때 개인의 이슈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백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설계와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II.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는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모든 정치 이슈를 포식하는 메가 이슈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WHO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놓고 정치적으로 대

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및 탈퇴를 시사한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2020년 4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한다.³⁾ 한편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사회·경제 대부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치에서도 코로나19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두드러졌다. 초기대응의 성패 여부, 방역 조치의 적절성 및 형평성 여부, 경제적·사회적 대응정책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마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슈도 이러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불확실성과 직면한 위기의 크기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슈를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정치화 현상을 초래했다. 코로나19 기간 내내 백신의 효과성과 부작용뿐만 아니라 도입 백신의 종류, 도입 시기, 접종 우선순위, 비용 부담, 백신패스 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모든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자리하다 보니 백신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표출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백신 자체 개발을 추진하였다.⁴⁾ 하지만 백신 개발의 선발주자였던 미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에서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자 자체 개발과 개발된 백신의 도입을 놓고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미국 등에서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실험 성공 소식이 전해지고 최종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에 주요 국가들의 선구매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백신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초기 백신과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면 정부의 백신 정책 실패 및 빠른 백신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견해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도입심증론을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견해가 대결하는 양상을 보인다.⁵⁾ 이러한 여야 간의 백신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심화되자 대중의 백신에 대한 태도도 정파적으로 배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당시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4.4%가 ‘긴급성 우선’ 의견에 공감한다

3) BBC. 2020.04.09. "Coronavirus: WHO chief urges end to 'politicisation' of virus." <https://www.bbc.com/news/world-52224183> (최종확인: 2024.09.10.)

4) 강국진. 2020.02.28. "일본,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8500149> (최종확인: 2024.09.10.)

5) 김미나. 2020.12.14. "국민의힘, 불안과 열망을 파고드는 '백신 심리전' 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4141.html> (최종확인: 2024.06.10.)

고 응답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 지지자 중 82.5%가 ‘안전성 우선’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⁶⁾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20년 8월부터 급증하는 가운데, 9월 발생한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건은 백신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열시켰다.⁷⁾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신 관리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논제가 되어 여야 간의 논쟁의 대상이 된다.⁸⁾ 더욱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보도가 잇따르면서 백신 일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전의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건과 결부되어 백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⁹⁾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과 결부되어 백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¹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유보하겠다는 태도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¹¹⁾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하고 백신 접종 일정이 발표되기 시작하는 2020년 12월부터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백신 자체 개발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을 구매한다는 견해를 정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백신 사용승인 및 접종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한국 정부는 이제서야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²⁾ 특히 일본, EU 등의 백신 선구매 소

-
- 6) 리얼미터. 2020.12.23.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안점, 국민 절반은 ‘긴급성 우선.’” <http://www.realmeter.net/코로나19-백신-접종-주안점-국민-절반은-긴급성-우선/>(최종확인: 2024.06.10.)
- 7) 지영호. 2020.09.24. “초유의 백신 상온노출 사태…박능후 결국 고개 숙였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409275399749&outlink=1&ref=%253A%252F%252F>(최종확인: 2024.09.11.)
- 8) 고현석. 2022.10.07. “코로나 선방에도, 독감백신 빠듯…결국 고개숙인 정은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8307>(최종확인: 2024.09.11.)
- 9) BBC. 2020.10.23.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36명… 백신 맞아도 되나요?” <https://www.bbc.com/korean/news-54657866>(최종확인: 2024.09.11.)
- 10) 이동현. 2020.10.26. “문 대통령, 독감 백신 첫 언급 “예방접종·사망, 인과관계 없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614520002545>(최종확인: 2024.09.11.)
- 11) 하상우. 2020.10.20. “경기도민 62% “코로나 백신, 연내 개발되더라도 안전성 입증 때까지 접종 보류.””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0/20/6KSQUWT35FFFHAUFHQ43N73WHU/>(최종확인: 2024.09.11.)
- 12) 한영혜. 2020.12.10. “유승민 “이제서야 ‘접종계획 앞당겨라?’ 文대통령 직무유기.”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42162>(최종확인: 2024.09.11.)

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접종 지연에 대한 위기감이 상승하였고 백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심화된다.¹³⁾ 백신 확보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자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구매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그해 12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하여 화이자, 모더나 등과 백신 구매계약을 발표하며 뒤늦게 백신 우선 확보에 나서게 된다.¹⁴⁾ 하지만 정부의 백신 도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국민의힘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속한 백신 도입과 접종 이슈를 당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키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나간다.¹⁵⁾

2021년 2월 처음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지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의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부추겼다. 고령자에게 효과가 없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도입한 4가지 종류의 백신 중 누가 어떠한 백신을 맞을 것인가도 사회적 이슈가 되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켰다.¹⁶⁾ 특히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부터 백신 접종 이후 사망사건 및 이상증상 등이 보고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책임 논란이 두드러진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과 그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인과성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면서 정부 책임과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나타났다.¹⁷⁾

2021년 1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80%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쟁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효과성, 그리고 백신 의무 접종과 백신패스 등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된다. 2021년 하반기 백신 접종률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관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백신의 효

13) 임선영. 2020.11.15. “화이자 백신 확보전…이스라엘도 샀는데 한국은 아직 못샀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0778> (최종확인: 2024.09.11.)

14) 이진경·윤지로. 2020.12.08. “정부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확보…접종 신중하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08520686> (최종확인: 2024.09.04.)

15) 김기정. 2020.12.14. ““백신이 먼저다 백드롭 건 김종인, 文 향해 “왜 구매도 못하냐.”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44938> (최종확인: 2024.09.11.)

16) 광혜진. 2021.02.15. “정은경, 오늘 백신접종계획 발표…AZ 고령층 접종 여부 주목.”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5500004> (최종확인: 2024.09.11.)

17) 임효진. 2021.04.22. “백신 사망자 절반은 ‘사인 미상’...보건당국 “인과성 입증된 것 없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2500025> (최종확인: 2024.09.11.)

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더불어 정부의 청소년 의무 접종과 백신패스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백신 정책을 놓고 지속적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는 팬데믹 기간 내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정치화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한 이슈가 중심이었다면 후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의무 접종과 백신패스와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화되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의 백신 정책을 옹호하고,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집단면역을 위해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백신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코로나19 백신과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도입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도입 이후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핵심적 논제로 제기되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주목시켰다.

III. 백신의 정치화와 과학의 역할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개인의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한다. 더 나아가 과학에 대한 인식이 백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과학에 대한 평가 및 과학적 지식이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1. 백신의 정치화와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

기존의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의 요인으로 정당일체감(partisan identification),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 등에 주목한다.

백신 이슈의 정치화에 따른 개인의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의 첫째 요인은 개인의 정당일체감이다. 정당일체감이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느끼는 애착

심 또는 충성심으로 사건의 인지 및 정보의 선택 등에 관여하여 개인이 정당과 유사한 견해를 갖게 만든다(Cambell et al., 1960). 정당일체감이 높은 개인들은 정당을 일종의 인지적 지름길(cognitive shortcut)로 활용하여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한다(Campbell et al., 1960; Lodge & Taber, 2013). 또한 정당일체감이 기존의 믿음이나 원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배척하는 비확증편향(disconfirmation bias)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Lodge & Taber, 2013; Taber & Lodge, 2006; Flynn et al., 2017; Druckman & McGrath, 2019). 따라서 특정한 이슈가 정쟁의 대상이 될 때 정당일체감은 이슈에 대한 지지 정당의 견해를 개인이 수용하거나 모방하게 만든다.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수용성에 관한 연구도 지지 정당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태도가 지지정당의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평가한다(Viskupič & Wiltse, 2023; 박지영, 2023; 김영욱 외, 2022).

둘째, 개인의 정서적 양극화(affected polarization)도 대중의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심화시킨다. 정서적 양극화란 유권자의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반대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현상으로 정당이 집단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Iyengar et al., 2012; Iyengar & Westwood, 2015; Mason, 2018).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으나(이내영, 2011), 최근 다수의 연구는 한국 유권자 사이에서도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정동준, 2018; 길정아·하상응, 2019; 장승진·서정규, 2019).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의 정서적 양극화는 지지 정당에 따라 정치적 이슈에 대해 지지정당과 유사한 입장을 갖게 만든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나타날 때 지지 정당에 따라 위기 인식, 대응정책, 정책 순응, 정부평가 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e.g., 오현진, 2022; 배진석, 2021; Druckman et al., 2021).

마지막으로 대중의 백신에 대한 인식의 당파적 배열 현상의 또 하나의 심화 요인은 미디어의 영향이다. 백신이 정치적 쟁점으로 주목받을수록 언론은 백신을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보도하기보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도가 언론사의 정치적 배열에 따라 분화되어 당파성에 따라 백신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장미경·민영, 2021). 특히 오늘날 당파적 언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더 당파적으로 배열될 가능성이 있다(박지영, 2020; Druckman et al., 2018; Lau et al., 2016).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촉진한다. 뉴 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편향된 소비의 가능성도 증가시켰다(Sunstein, 2001; Pariser, 2011). 뉴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와 개인의 정보 소비 패턴에 부합하도록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편향된 뉴스 및 정보 소비가 발생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촉진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Bakshy et al., 2015; Allcott & Gentzkow, 2017).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기존 연구도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미디어의 소비 행태에 따라 백신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Gadarian et al., 2021; Piltch-Loeb et al., 2021; Puri et al., 2020; 장윤재·김미라 2022).

이러한 메커니즘을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화 현상에 따라 나타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은 백신 전반에 대한 인식의 당파적 배열을 초래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지닌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백신과 같은 단일 개념의 하부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 개념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따라서 개념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한다(Lee 2018; von Sikorski and Herbst 2020). 다수의 선행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미국 및 유럽에서의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백신 일반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한다(Lunz Trujillo et al., 2024; Opel et al., 2023; Soveri et al., 2023). 또한 이러한 파급 효과는 횡단면을 따른 확산뿐만 아니라 시간적 종단면을 따라 개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Fridman et al., 2021; Lunz Trujillo et al., 2024). 따라서 전례가 없는 전 지구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이 나타난 경우,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이러한 당파적 배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강조한 민주당과 당시 야당으로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코로나19 백신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국민의힘 사이의 논쟁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백신 일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가설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다.

2. 당파성, 과학, 그리고 백신에 대한 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관한 판단은 과학의 영역이다. 백신이 과학적 지식과 탐구 결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과학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의 수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과학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개인의 백신수용성을 증가시킨다. 과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과 태도는 과학적 탐구의 산물인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과학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신뢰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는 과학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신뢰하는 비율이 낮고 백신수용성이 높다고 분석한다(Mousoulidou et al., 2023; Bajos et al., 2022; Barattucci et al., 2022; DJordjević et al., 2021; Sturgis et al., 2021). 반대로 백신 거부자들은 의료 권위자가 제공하는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다(Kata, 2010; Dubé et al., 2015).

과학적 지식의 객관적 수준도 개인의 백신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높을수록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한다(DJordjević et al., 2021; Sailer et al., 2022; Fasce & Picó, 2019). 백신에 대한 태도는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정부의 대응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Fischer et al. 2014). 과학적 지식수준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과학적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 백신에 대한 객관적 수용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적 판단이 이슈의 쟁점이 되는 기후변화나 진화론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존의 연구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객관적 지식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진화론을 인정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Weisberg et al., 2018; Shi et al., 201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지식이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 과정에서 정당 간의 논쟁의 구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가 인간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이다.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인식이 긍정적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급력과 지속력이 크다고 평가한다(Rozin & Royzman

2001; Taylor, 1991; Baumeister et al., 2001). 이러한 경향은 결정에 따른 잠재적 이익보다 잠재적 비용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경향과 부정적 사건에 대한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 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Peeters & Czapsinski 1990). 백신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될 때는 백신 접종 의사를 감소시키지만, 긍정적인 정보에의 노출이 백신 접종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분석한다(Nan & Madden 2012).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에 따른 당파적 배열의 효과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문을 제기해 온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정성 편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지식이 백신의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학에 대한 인식이 백신 일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학적 지식수준이 백신 일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IV. 연구설계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에서 2024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수집한 한국 거버넌스 바로미터 조사(Korea Governance Barometer Survey; KBG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비례 할당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880명으로 정의당이나 소수정당 지지자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의 주요한 종속변수는 백신에 대한 태도(백신에 대한 태도)로 백신 접종에 관한 서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두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문항은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은 이롭기보다는 해가 많다”와 “백신 접종을 받는 것보다 병에 걸려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낫다”로 응답자들은 5점 척도(매우 동의 안함~매우

동의)로 답변하였다.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값이 커질수록 백신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각각의 가설에 응답하기 위해 과학에 대한 낙관적 태도, 지지 정당, 과학적 지식수준 등 총 3가지의 주요한 독립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선 과학에 대한 태도(*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과 기술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서술에 5점 척도(매우 동의 안함~매우 동의)로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둘째, 지지 정당은 주요 정당인 민주당, 국민의힘과 무당파를 포함하였고, 정의당 등 기타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¹⁸⁾ 정당은 민주당을 기준으로 국민의힘(*국민의힘*)과 무당파(*무당파*)를 각각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지식수준(*과학적 지식*)은 자연과학과 관련된 서술에 대해 참, 거짓, 모른다고 응답한 7가지 문항을 활용하여 과학적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답을 선택하였으면 1점, 오답을 선택하였으면 -1점,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면 0점을 부여하고, 7가지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¹⁹⁾

이 밖에도 기존의 연구에서 개인의 백신거부 및 백신수용성의 결정요인으로 지목된 변수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념성향(*이념성향: 보수*)은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대한 문항으로 “매우 진보”를 1점, “매우 보수”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과학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 정도(*과학자의 팬데믹 정보신뢰*)는 “의료과학자 집단이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값이 클수록 높은 신뢰를 의미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한 염려(anxiety)가 백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우선 미래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염려(*미래 팬데믹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팬데믹이 발생하는 때 건강에 대한 염려(*팬데믹으로 인한 건강염려*)를 각각 포함하였다. 미래 팬데믹에 대한 염려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것에 얼마나 우려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고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염려는 “팬데믹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모두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값이 클수록 염려나 걱정이 큰 것을 의미한다.

18)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가깝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84명이며,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12명으로 전체 표본의 4.8%이다.

19) 7가지 과학적 지식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의 중심은 매우 뜨겁대첩, (2)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위치가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동할 것 이대첩, (3) 모든 방사능은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졌대거짓, (4) 전자는 원자보다 작대첩, (5) 레이저는 음파를 이용하여 작동한다거짓, (6) 자녀의 성별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통해 결정된다대첩, (7) 항생제는 박테리아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죽인다거짓.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의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도 포함하였다. 우선 종교와 백신 접종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반영하여 종교(종교: 기독교) 변수를 통제하였다(McPhetres & Zuckerman, 2018; Zarzeczna et al., 2023). 백신 접종 거부와 기독교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반영하여 종교가 기독교면 1, 그 외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²⁰⁾ 개인의 교육수준(교육수준)은 3점 척도로 중학교 졸업 이하는 1, 고등학교 졸업은 2, 대학 재학 이상은 3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소득수준)은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을 5분위 소득으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성별(여성)은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세대로 변환하여 2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V. 분석의 결과

연구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당파성, 과학에 대한 낙관적 태도,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 백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백신에 대한 태도가 5점의 순서형 변수(ordinal variable)이기는 하지만 척도가 5점 이상인 경우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와 동일한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여도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를 따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였다(Dolan, 1994; Yang-Wallentin et al., 2010; Rhemtulla et al., 2012).²¹⁾

〈표 1〉의 모델(1)은 베이스라인 모델로 주요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수인 백신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개인의 지지당에 따른 백신에 태도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1)의 국민의힘과 무당파 변수의 상관계수가 모두 0보다 작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 백신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종교의 경우, 종교가 아니라 신앙심(spirituality)과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반영하여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힘을 지닌 신의 존재를 얼마나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4점 척도(전혀 믿지 않는다~많이 믿는다)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값은 비슷하였다.

21)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델을 활용한 분석의 결과도 〈표 1〉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순서형 로짓 모델을 활용한 분석의 결과는 〈부록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지식이 백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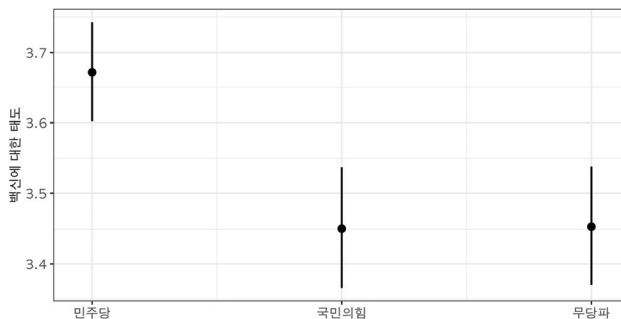
	종속변수: 백신에 대한 태도		
	(1)	(2)	(3)
국민의힘	-0.221*** (0.061)	-0.590*** (0.193)	-0.164** (0.067)
무당파	-0.218*** (0.056)	-0.422** (0.193)	-0.255*** (0.066)
과학에 대한 태도	-0.019 (0.022)	-0.063** (0.032)	-0.018 (0.022)
과학적 지식	0.033*** (0.010)	0.033*** (0.010)	0.043*** (0.014)
과학에 대한 태도 × 국민의힘		0.100** (0.050)	
과학에 대한 태도 × 무당파		0.059 (0.054)	
과학적 지식 × 국민의힘			-0.047** (0.021)
과학적 지식 × 무당파			0.022 (0.022)
이념성향: 보수	-0.022 (0.021)	-0.022 (0.021)	-0.019 (0.021)
과학자의 팬데믹 정보신뢰	0.230*** (0.031)	0.232*** (0.031)	0.228*** (0.031)
미래 팬데믹에 대한 염려	-0.031 (0.044)	-0.031 (0.044)	-0.029 (0.044)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염려	0.024 (0.044)	0.023 (0.044)	0.020 (0.044)
종교: 기독교	-0.069 (0.054)	-0.069 (0.054)	-0.062 (0.054)
교육수준	0.085* (0.043)	0.088** (0.043)	0.086** (0.043)
소득수준	0.037** (0.018)	0.038** (0.018)	0.037** (0.018)
여성	-0.107** (0.044)	-0.113** (0.044)	-0.110** (0.044)

종속변수: 백신에 대한 태도			
	(1)	(2)	(3)
세대	0.093*** (0.018)	0.095*** (0.018)	0.093*** (0.018)
Constant	2.339*** (0.228)	2.481*** (0.241)	2.324*** (0.229)
Observations	1,880	1,880	1,880
R ²	0.087	0.089	0.092
Adjusted R ²	0.081	0.082	0.085
Residual Std. Error	0.918	0.917	0.916

Note: * p<0.1, ** p<0.05, *** p<0.01

당파성에 따른 백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그림 1>에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표 1>의 모델(1)을 바탕으로 지지정당에 따른 백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예측값에 대한 그래프인데, 비록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파 사이에 차이는 없으나 민주당 지지자의 백신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파보다 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코로나19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정책의 적절성과 더불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과 백신 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국민의힘의 견해 차이와 비슷한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한국의 주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 당파성에 따라서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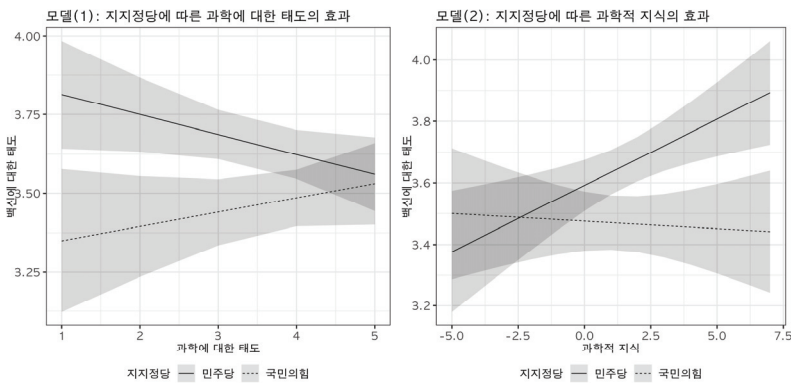
<그림 1> 지지정당에 따른 백신에 대한 태도의 차이



〈표 1〉의 모델(1)을 통해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지식이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인의 과학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백신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p \geq .05$). 이러한 결과는 다른 모두 조건이 동일할 때 과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백신에 대한 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과학적 지식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개인의 과학적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 백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적 지식이 백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백신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선 세 변수의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백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개인적 요인은 과학에 대한 태도보다는 개인의 당파성과 과학에 대한 태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의 모델(2)은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 지지정당에 따라 과학에 대한 태도가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국민의힘과 무당파 변수의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과학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서 지지정당이 국민의힘이거나 무당파이면 민주당 지지자보다 백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1)과 동일하게 가설1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림 2〉 상호작용형에 따른 백신에 대한 태도의 예측값



하지만 가설2의 예측과 달리 과학에 대한 태도가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완화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2>의 모델(1)은 <표1>의 모델(2)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예측값 그래프인데 가설2의 예측과 달리 과학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에서 백신에 대한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²²⁾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과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백신에 대한 태도가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변화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백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p \geq .05$). 이러한 결과는 과학에 대한 관념적인 지지나 인식이 백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보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난 백신의 정치화에 따른 당파적 배열의 이념적 파급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과학적 지식의 경우에는 당파성에 따른 백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다. <표 1>의 모델(3)은 지지정당에 따라 과학적 지식이 백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국민의힘과 무당파의 상관계수가 모두 음(-)의 값을 갖는다. 비록 국민의힘의 상관계수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국민의힘 또는 무당파일 때 과학적 지식이 이 가장 낮은 경우 민주당에 비해서 백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적 지식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이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과학적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백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의 모델(2)은 <표 1>의 모델(3)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예측값 그래프로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과학적 지식수준이 상승할수록 백신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지식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응답자(과학적 지식=-1)에 비해 상위 10%의 지식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자(과학적 지식=5)가 백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 \leq .05$).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과학적 지식수준이 변화할 때 백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p \geq .05$). 이러한 차이는 가설3의 예측과 같이 부정성 편향의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 및 부정성 편향의 효

22) 예측값 그래프에서 선은 예측값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각 예측값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과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백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긍정적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견지한 민주당의 영향과 백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긍정적 효과와 상호작용하며 백신에 대한 태도가 과학적 지식수준이 높아질 때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표 1>에 포함된 다른 설명변수가 백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자가 제공하는 팬데믹에 대한 정보신뢰(*과학자의 팬데믹 정보신뢰*) 변수의 상관계수는 모델 (1)~(3) 모두에서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 \leq .05$). 따라서 과학자가 제공하는 팬데믹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경우 백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소득수준의 상관계수의 값이 양수이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²³⁾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백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과 세대의 상관계수는 세 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p \leq .05$), 여성의 상관계수는 음의 값으로 남성보다 여성일 때 상대적으로 백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세대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백신수용성이 높고 백신에 적극적이라는 연구의 내용과 부합한다(김한나 외, 2021; 장경은·백영민, 2023; Guidry et al., 2021).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모두 양수로 교육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변수와 비슷한 경향성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과학적 지식의 수준과 이해가 높아져 백신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심화되었던 백신의 정치화 현상이 이후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23) 모델(3)의 경우에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심화는 개인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당파적 배열의 파급 효과가 대중의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적 지식수준이 이러한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에 따른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완화효과가 당파성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4년 1월에 수집한 KGB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난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에 따른 당파적 배열이 팬데믹 이후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견해를 밝혀 왔는데, 분석의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에 있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백신 접종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파급효과의 범위 및 지속 기간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신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과학의 역할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과학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의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에 관한 판단이 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성에 따라 굳어진 백신에 대한 태도가 과학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과학적 지식수준에 따라 백신에 대한 태도는 당파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과학적 지식수준의 변화에 따라 백신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과학적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백신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이 나타날 때 과학적 지식이 완화하는 효과가 부정성 편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정치화되는 경우 과학적 지식이 제한적으로 정치화의 효과를 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 및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난 백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그 논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을 초래하는 파급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이러한 당파적 배열의 효과는 부정성 편향에 따라 백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파급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특정 이슈가 정치에 의해 소환되어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는 경우, 그 이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끝난 상황에서도 이슈 일반에 대한 인식은 당파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쉽게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과학적 판단이 결부된 이슈가 정치화 될 때 교육의 역할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백신 일반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이 나타날 때 과학적 지식이 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과학 교육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이 과학이 결부된 이슈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 전환과 같이 과학적 판단이 결부된 이슈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논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백신 이슈의 정치화에 따른 개인의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이 시사하는 바는 정치의 영역에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정쟁의 대상이 된 경우 개인이 백신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당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백신과 같이 과학적 판단이 중요한 이슈의 정치화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학에 대한 인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이를 바로잡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정치적 논쟁으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개인적 비용도 너무 크다. 따라서 정치적 판단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과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화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등의 한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개별 백신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 일반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개별 백신에 대한 태도에도 당파적 배열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MMR 백신 등에 대한 신뢰도 및 접종 의사가 당파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전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로 및 백신과 관련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통해 개별 사안에서 과학의 역할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과학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중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치화의 파급효과의 범위 및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치화가 발생하였고, 백신에 대한 태도의 당파적 배열 효과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데이터가 수집된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당파적 배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로 따라 비교 시점 및 파급효과의 범위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하여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조사실험연구 등을 활용하여 당파적 배열의 파급효과의 범위 및 크기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금현섭·백승주. 2015.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1): 1-33.
- 길정아. 2019.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3): 31-69.
- 김영욱·김혜정·소담이. 2022. “코로나19 백신의 정치화: 정치적 성향과 음모론에 대한 신념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32: 97-132.
- 김한나·장한일·장승진. 2021. “백신 접종의 정치심리학: 코로나19 음모론, 정부 대응 평가, 그리고 백신 접종 의사.” 《한국정당학회보》, 20(3): 99-130.
- 박지영.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 및 선택적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상반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213-244.
- _____. 2023.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22(4): 127-157.
- 배진석. 2021. “당파적 태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7(1): 77-116.
- 오현진. 2022.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과 당파성의 역할.” 《정부학연구》, 28(1): 65-86.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7.
- 장경은·백영민. 2023. “코로나19 백신접종 수용집단, 주저집단, 거부집단 분석: 인구 통계학적 배경, 정치성향, 코로나19 관련 인식, 사회 신뢰, 커뮤니케이션 행동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2): 23-54.
- 장미경·민영. 2021. “COVID-19 백신 보도의 정치화와 극화: 주요 언론의 사설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21(3): 139-173.
- 장승진·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
- 장윤재·김미라. 2022. “미디어 의존과 정파적 뉴스 이용의 효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 경제상황 인식 및 정부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115: 118-146.
-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OUGHTOPIA》, 33(3): 143-180.

- 황선재 · 길정아 · 최슬기. 2021. “코로나19 백신수용성: 정부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2): 95-120.
- Allcott, Hunt, & Gentzkow, Matthew.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1(2): 211-236.
- Bajos, Nathalie, Spire, Alexis, Silberzan, Léna, Sireyjol, Antoine, Jusot, Florence, Meyer, Laurence, Franck, Jeanna-Eve, Warszawski, Josiane, & EpiCov Study Group. 2022. “When Lack of Trust in the Government and in Scientists Reinforces Social Inequalities in Vaccination Against COVID-19.”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908152.
- Bakshy, Eytan, Messing, Solomon, & Adamic, Lada A. 2015.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348(6239): 1130-1132.
- Barattucci, Massimiliano, Pagliaro, Stefano, Ballone, Chiara, Teresi, Manuel, Consoli, Carlo, Garofalo, Alice, De Giorgio, Andrea, & Ramaci, Tiziana. 2022. “Trust in Science as a Possible Mediator Between Different Antecedents and COVID-19 Booster Vaccination Intention: An Integration of Health Belief Model (HBM)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Vaccines*, 10(7): 1099.
- Baumeister, Roy F., Bratslavsky, Ellen, Finkenauer, Catrin, & Vohs, Kathleen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23-370.
- Campbell, Angus, Converse, Philip E., Miller, Warren E., & Stokes, Donald E.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jordjević, J. Milošević, Mari, S., Vdović, M., & Milošević, A. 2021. “Links between Conspiracy Beliefs, Vaccine Knowledge, and Trust: Anti-Vaccine Behavior of Serbian Adults.” *Social Science & Medicine*, 277: 113930.
- Dolan, Conor V. 1994. “Factor Analysis of Variables with 2, 3, 5 and 7 Response Categories: A Comparison of Categorical Variable Estimators Using Simulated Data.”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7(2): 309-326.
- Druckman, James N., & McGrath, Mary C. 2019. “The Evidence for Motivated Reasoning in Climate Change Preference Formation.” *Nature Climate*

Change, 9(2): 111-119.

- Druckman, Klar, Samara, Krupnikov, Yanna, Levendusky, Matthew, & Ryan, John B. 2021. "How Affective Polarization Shapes Americans' Political Beliefs: A Study of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8(3): 223-234.
- Dubé, Eve, Vivion, Maryline, & MacDonald, Noni E. 2015. "Vaccine Hesitancy, Vaccine Refusal and the Anti-Vaccine Movement: Influence, Impact and Implications." *Expert Review of Vaccines*, 14(1): 99-117.
- Fasce, Angelo, & Picó, Alfonso. 2019. "Science as a Vaccine: The Relation between Scientific Literacy and Unwarranted Beliefs." *Science & Education*, 28(1-2): 109-125.
- Fischer, Frank, Kollar, Ingo, Ufer, Stefan, Sodian, Beate, Hussmann, Heinrich, Pekrun, Reinhard, Neuhaus, Birgit, Dorner, Birgit, Pankofer, Sabine, Fischer, Martin, Strijbos, Jan-Willem, Heene, Moritz, & Eberle, Julia. 2014. "Scientific Reasoning and Argumentation: Advancing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Agenda in Education." *Frontline Learning Research*, 2(3): 28-45.
- Flynn, D. J., Nyhan, Brendan, & Reifler, Jason. 2017. "The Nature and Origins of Misperceptions: Understanding False and Unsupported Beliefs About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38(S1): 127-150.
- Fridman, Ariel, Gershon, Rachel, & Gneezy, Ayelet. 2021. "COVID-19 and Vaccine Hesitancy: A Longitudinal Study." *PLoS ONE*, 16(4): e0250123.
- Gadarian, Shana K., Goodman, Sara W., & Pepinsky, Thomas B. 2021. "Partisanship, Health Behavior, and Policy Attitud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PLoS ONE*, 16(4): e0249596.
- Guidry, Jeanine PD., Laestadius, Linnea I., Vraga, Emily K., Miller, Carrie A., Perrin, Paul B., Burton, Candace W., Ryan, Mark, Fuemmeler, Bernard F., & Carlyle, Kellie E. 2021. "Willingness to Get the COVID-19 Vaccine with and Without Emergency Use Authorization."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9(2): 137-142.
- Iyengar, Shanto, & Hahn, Kyu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 _____, & Westwood, Sean J. 2015. "Fear and Loathing Across Party Lines: New Evidence on Group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3): 690-707.
- _____, Sood, Gaurav, & Lelkes, Yphtach.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 Karafillakis, Emilie, & Larson, Heidi J. 2017. "The Benefit of the Doubt or Doubts Over Benefi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Perceived Risks of Vaccines in European Populations." *Vaccine*, 35(37): 4840-4850.
- Kata, Anna. 2010. "A Postmodern Pandora's Box: Anti-Vaccination Misinformation on the Internet." *Vaccine*, 28(7): 1709-1716.
- Keele, Luke. 2005. "The Authorities Really Do Matter: Party Control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s*, 67(3): 873-886.
- Lee, Francis L. F. 2018. "The Spillover Effects of Political Scandals: The Moderating Role of Cynicism and Social Media Communication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5(3): 714-733.
- Lodge, Milton, & Taber, Charles S. 2013. *The Rationalizing Vote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nz Trujillo, Kristin, Green, Jon, Safarpour, Alauna, Lazer, David, Lin, Jennifer, & Motta, Matthew. 2024. "COVID-19 Spillover Effects Onto General Vaccine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88(1): 97-122.
- Maciuszek, Józef, Polak, Mateusz, Stasiuk, Katarzyna, & Doliński, Dariusz. 2021. "Active Pro-Vaccine and Anti-Vaccine Groups: Their Group Identities and Attitudes Toward Science." *PLoS ONE*, 16(12): e0261648.
- Mason, Lilliana. 2018. "Ideologues Without Issues: The Polarizing Consequences of Ideological Identities." *Public Opinion Quarterly*, 82(S1): 866-887.
- McPhetres, Jonathon, & Zuckerman, Miron. 2018. "Religiosity Predicts Negative Attitudes Towards Science and Lower Levels of Science Literacy." *PLoS ONE*, 13(11): e0207125.
- Mousoulidou, Marilena, Christodoulou, Andri, Siakalli, Michailina, & Argyrides, Marios. 2023. "The Role of Conspiracy Theories, Perceived Risk, and Trust in Science on Covid-19 Vaccination Decisiveness: Evidence

- from Cypru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4): 2898.
- Nan, Xiaoli, & Madden, Kelly. 2012. “HPV Vaccine Information in the Blogosphere: How Positive and Negative Blogs Influence Vaccine-Related Risk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Health Communication*, 27(8): 829-836.
- Opel, Douglas J., Brewer, Noel T., Buttenheim, Alison M., Callaghan, Timothy, Carpiano, Richard M., Clinton, Chelsea, Elharake, Jad A., Flowers, Lisa C., Galvani, Alison P., Hotez, Peter J., Schwartz, Jason L., Benjamin, Regina M., Caplan, Arthur, DiResta, Renee, Lakshmanan, Rekha, Maldonado, Yvonne A., Mello, Michelle M., Parmet, Wendy E., Salmon, Daniel A., Sharfstein, Joshua M., & Omer, Saad B. 2023. “The Legacy of the COVID-19 Pandemic for Childhood Vaccination in the USA.” *The Lancet*, 401(10370): 75-78.
- Pariser, Eli.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London, UK: Penguin Press.
- Peeters, Guido, & Czapinski, Janusz. 1990. “Positive-Negative Asymmetry in Evaluations: The Distinction Between Affective and Informational Negativity Effect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1): 33-60.
- Piltch-Loeb, Rachael, Savoia, Elena, Goldberg, Beth, Hughes, Brian, Verhey, Tanner, Kayyem, Juliette, Miller-Idriss, Cynthia, & Testa, Marcia. 2021. “Examining the Effect of Information Channel on COVID-19 Vaccine Acceptance.” *PLoS ONE*, 16(5): e0251095.
- Puri, Neha, Coomes, Eric A., Haghbayan, Hourmazd, & Gunaratne, Keith. 2020. “Social Media and Vaccine Hesitancy: New Updates for the Era of COVID-19 and Globalized Infectious Diseases.” *Human Vaccines & Immunotherapeutics*, 16(11): 2586-2593.
- Rhemtulla, Mijke, Brosseau-Liard, Patricia É., & Savalei, Victoria. 2012. “When Can Categorical Variables Be Treated as Continuous? A Comparison of Robust Continuous and Categorical Sem Estimation Methods Under Suboptimal Conditions.” *Psychological Methods*, 17(3): 354.
- Rozin, Paul, & Royzman, Edward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296–320.
- Saied, Shima M., Saied, Eman M., Kabbash, Ibrahim A., & Abdo, Sanaa A. E. 2021. “Vaccine Hesitancy: Beliefs and Barriers Associated with COVID-19 Vaccination Among Egyptian Medical Students.” *Journal of Medical Virology*, 93(7): 4280–4291.
- Sailer, Michael, Stadler, Matthias, Botes, Elouise, Fischer, Frank, & Greiff, Samuel. 2022. “Science Knowledge and Trust in Medicine Affect Individuals’ Behavior in Pandemic Cris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7(1): 279–292.
- Sallam, Malik, Dababseh, Deema, Eid, Huda, Al-Mahzoum, Kholoud, Al-Haidar, Ayat, Taim, Duaa, Yaseen, Alaa, Ababneh, Nidaa A., Bakri, Faris G., & Mahafzehl, Azmi. 2021. “High Rates of COVID-19 Vaccine Hesitancy and Its Association with Conspiracy Beliefs: A Study in Jordan and Kuwait Among Other Arab Countries.” *Vaccines*, 9(1): 42.
- Shi, Jing, Visschers, Vivianne H. M., & Siegrist, Michael. 2015. “Public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The Importance of Knowledge and Cultural Worldviews.” *Risk Analysis*, 35(12): 2183–2201.
- Siegrist, Michael, & Zingg, Alexandra. 2014. “The Role of Public Trust During Pandemics: Implications for Crisis Communication.” *European Psychologist*, 19(1): 23–32.
- Soveri, Anna, Karlsson, Linda C., Antfolk, Jan, Mäki, Otto, Karlsson, Linnea, Karlsson, Hasse, Nolvi, Saara, Karukivi, Max, Lindfelt, Mikael, & Lewandowsky, Stephan. 2023. “Spillover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Attitudes to Influenza and Childhood Vaccines.” *BMC Public Health*, 23(1): 764.
- Sunstein, Cass R. 2001. *Echo Chambers: Bush v. Gore, Impeachment, and Beyo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ber, Charles S., & Lodge, Milton.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 Taylor, Shelley E. 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67.
- Viskupič, Filip, & Wiltse, David L. 2023. “Political Partisanship and Trust in Government Predict Popular Support for COVID-19 Vaccine Mandates for Various Professions and Demographic Groups: A Research Note.” *American Politics Research*, 51(2): 139-146.
- Von Sikorski, Christian, & Herbst, Christina. 2020. “Not Practicing What They Preached! Exploring Negative Spillover Effects of News About Ex-Politicians’ Hypocrisy on Party Attitudes, Voting Intentions, and Political Trust.” *Media Psychology*, 23(3): 436-460.
- Weisberg, Deena S., Landrum, Asheley R., Metz, S. Emlen, & Weisberg, Michael. 2018. “No Missing Link: Knowledge Predicts Acceptance of Evolution in the United States.” *BioScience*, 68(3): 212-222.
- Wiegand, Martin, Eagan, Rachel L., Karimov, Rouslan, Lin, Leesa, Larson, Heidi J., & Figueiredo, Alexandre De. 2023. “Global Declines in Vaccine Confidence from 2015 to 2022: A Large-Scale Retrospective Analysis.”
- Yang-Wallentin, Fan, Joreskog, Karl, & Luo, Hao. 201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Ordinal Variables With Misspecified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7(3): 392-423.
- Zarieczna, Natalia, Bertlich, Tisa, Večkalov, Bojana, & Rutjens, Bastiaan T. 2023. “Spirituality Is Associated with COVID-19 Vaccination Scepticism.” *Vaccine*, 41(1): 226-235.

부록A.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표 2〉 기술통계량

	N	Mean	Min	Median	Max	St. Dev.
백신에 대한 태도	1,880	3.590	1	4	5	1.109
과학에 대한 태도	1,880	3.568	1	4	5	1.016
이념성향: 보수	1,880	3.993	1	4	7	1.238
과학적 지식	1,880	1.488	-5	1	7	2.384
과학자의 팬데믹 정보신뢰	1,880	3.932	1	4	5	0.740
미래 팬데믹에 대한 염려	1,880	3.357	1	3	4	0.643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염려	1,880	3.302	1	3	4	0.642
종교: 기독교	1,880	0.197	0	0	1	0.398
교육수준	1,880	2.441	1	2	3	0.569
소득수준	1,880	2.837	1	3	5	1.255
성별: 여성	1,880	0.511	0	1	1	0.500
세대	1,880	3.381	1	4	5	1.451

부록B. 주요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표

〈표 3〉 지정정당에 따른 백신에 대한 태도의 빈도표

		지정정당			합계
		민주당	국민의힘	무당파	
백신에 대한 태도	1	8	15	5	28
	1.5	12	17	7	36
	2	43	45	34	122
	2.5	65	50	57	172
	3	123	121	149	393
	3.5	123	71	81	275
	4	185	113	97	395
	4.5	101	77	37	215
	5	135	74	35	244
합계	795	583	502	1880	

〈표 4〉 과학에 대한 태도에 따른 백신에 대한 태도의 빈도표

		과학에 대한 태도					합계
		1	2	3	4	5	
백신에 대한 태도	1	4	4	2	7	11	28
	1.5	0	5	5	17	9	36
	2	4	18	12	66	22	122
	2.5	4	30	35	88	15	172
	3	9	63	84	192	45	393
	3.5	9	44	54	149	19	275
	4	13	66	40	241	35	395
	4.5	7	51	19	106	32	215
	5	9	29	16	126	64	244
합계	59	310	267	992	252	1880	

〈표 5〉 과학적 지식수준에 따른 백신에 대한 태도의 빈도표

		과학적 지식수준											합계		
		-5	-4	-3	-2	-1	0	1	2	3	4	5		6	7
백신에 대한 태도	1	0	0	1	0	1	4	8	2	8	1	1	0	2	28
	1.5	0	0	0	1	6	7	11	0	5	3	0	1	2	36
	2	0	1	5	4	24	15	32	9	13	2	15	1	1	122
	2.5	1	4	7	7	26	23	37	24	25	7	9	0	2	172
	3	2	6	11	18	39	71	84	48	48	27	24	5	10	393
	3.5	1	1	6	18	26	44	55	46	30	24	13	3	8	275
	4	1	5	10	15	49	50	77	61	63	22	28	7	7	395
	4.5	3	0	2	10	17	29	40	16	40	16	22	8	12	215
	5	0	4	7	11	26	25	39	29	37	10	29	10	17	244
합계	8	21	49	84	214	268	383	235	269	112	141	35	61	1880	

부록C.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델 결과

〈표 6〉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모델의 분석 결과

	종속변수: 백신에 대한 태도		
	(1)	(2)	(3)
국민의힘	-0.421*** (0.119)	-1.211*** (0.385)	-0.318** (0.131)
무당파	-0.468*** (0.107)	-0.812** (0.364)	-0.497*** (0.125)
과학에 대한 태도	-0.031 (0.043)	-0.118* (0.063)	-0.030 (0.043)
과학적 지식	0.066*** (0.019)	0.065*** (0.019)	0.088*** (0.028)
과학에 대한 태도 × 국민의힘		0.216** (0.100)	
과학에 대한 태도 × 무당파		0.100 (0.102)	
과학적 지식 × 국민의힘			-0.086** (0.041)
과학적 지식 × 무당파			0.018 (0.043)
이념성향: 보수	-0.035 (0.041)	-0.035 (0.041)	-0.030 (0.041)
과학자의 팬데믹 정보신뢰	0.511*** (0.062)	0.517*** (0.062)	0.509*** (0.062)
미래 팬데믹에 대한 염려	-0.014 (0.086)	-0.018 (0.086)	-0.012 (0.086)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 염려	0.039 (0.086)	0.038 (0.086)	0.034 (0.086)
종교: 기독교	-0.151 (0.103)	-0.151 (0.104)	-0.144 (0.104)
교육수준	0.168** (0.084)	0.174** (0.084)	0.172** (0.084)
소득수준	0.059* (0.034)	0.059* (0.034)	0.057* (0.034)

	종속변수: 백신에 대한 태도		
	(1)	(2)	(3)
성별: 여성	-0.235*** (0.084)	-0.248*** (0.085)	-0.238*** (0.085)
세대	0.164*** (0.035)	0.167*** (0.035)	0.166*** (0.035)
Observations	1,880	1,880	1,880

Note: * p<0.1, ** p<0.05, *** p<0.01

The Legacy of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 Vaccine Attitudes in the Post-COVID-19 Era and the Role of Science

Dongjin Kwak

This study investigated impact of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 on vaccine attitudes after the pandemic. Has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 changed vaccine attitudes of the public along with their partisanship? Does scientific knowledge or attitudes toward science mitigate the effect? Based on the Korean Governance Barometer survey in 2024, this research analyzed how politicization of the COVID-19 vaccine issues during COVID-19 continued to influence general attitudes toward vaccines in South Korea in the post-COVID-19 era. Results revealed that the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s changed attitudes toward general vaccines according to individual partisanship after the pandemic. Support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the opposition par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old more negative views on vaccines and vaccination than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arty (DP). Attitudes toward science did not influence the partisan alignment of attitudes concerning vaccines. Conversely,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vaccine among respondents who supported DP.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liticization of the COVID-19 vaccine debate has a profound and enduring impact on individuals' general attitudes toward vaccines. Furthermore, results suggest that both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science and their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play a relatively limited role in mitigating the partisan alignment surrounding vaccine-related issues.

※ Keywords: Vaccine acceptance, Partisanship, Politicization, Scientific knowledge